

'예향'이라 부르기 무색한 광주·전남 문화 인프라·공연 횟수 전국 최하위

국토연구원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나타난 광주·전남의 현실

광주·전남 지역민의 문화·보육 등 삶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은 특히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와 공연 횟수 등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나 '예향'이란 이름이 무색했다. 또 전남지역은 의사 수와 병원 접근성 등 의료 인프라도 열악한 가운데 광주·전남 모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의사 수가 적어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보고서에 담겼다.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의 전체 인구 대비 0~6세 영·유아 인구 비율은 5%로 전국 평균 4.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5.2)에 이어 광역시 중 2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남은 4.3%로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그러나 광주의 인구 10만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14.7명으로 전국 평균 23.4명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8.5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임여성 10만명 당 산부인과 의원 수도 부족한

미술관·문화예술회관 수 등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미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 적어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려운 지역으로

문화·보육·보육 등 삶의 질 떨어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1.4명에 비해 광주는 10.5명에 그쳤으며 전남은 5.5명으로 역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의료인력은 인구 10만명 당 732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756명보다 다소 낮았다. 평균 26분 운전해야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의 전체적인 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00명으로 서울(1056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으며 평균 7분 내로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인구 10

만명 당 요양병원 수도 광주 28.1개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문화 시설, 공연 등도 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수는 총 66개다. 이 중 국·공립 도서관은 24곳으로 전국 평균 69곳에 비해 35% 수준에 그쳤으며, 박물관 또한 12곳으로 전국 평균 53곳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술관은 14개, 문화예술회관은 7개, 지방문화원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은 각각 18곳, 15개, 14개로, 광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 또한 적게 열렸는데 광주 공연 건수는 연간 247회로 울산(142회)에 이어 광역시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광주의 절반 수준인 132회 공연이 열리는 데 그쳤다.

또 전남은 도서관 수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 도서관 수는 71개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도서관 접근성은 전국에서 3번째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가려면 광주에서는 평균적으로 도보 33분(2.49km)이 걸리는 반면 전남에서는 100분(7.49km)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민들이 25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서 문을 연 신용도서관을 찾아 독서를 즐기고 있다. 광주시는 국공립도서관 수가 전국 평균 대비 35% 수준에 그치는 등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보육원 출신 대학생 새내기 '안타까운 죽음'

퇴소 당시 700여만원 받았지만 기숙사·생활비로 500만원 지출 금전 문제 시달리다 극단 선택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보육원 출신 대학 새내기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뒤 3일만에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오전 10시께 광산구 한 대학교 강의동 건물 뒤편 바닥에서 A(1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강의동 뒷편의 농장에 작업을 하기 위해 나온 농장주가 숨진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군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강의동 4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이 기숙사를 나와 강의동까지 이동한 경로 등이 학교 CCTV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군이 발견된 강의동 뒷편은 농장과 불

어있고 학교 시설이 없어 평소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이고 방학까지 더해져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설명했다.

A군은 대학에 합격한 올해 초 복구의 모 보육원을 나와 방학기간중에도 줄곧 기숙사에서 생활해왔다. A군이 기숙사 방에 남긴 쪽지에는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내용의 짧은 글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사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A군이 보육원 상담사와 금전적인 문제로 상담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상담사로부터 "A군이 퇴소 당시 독립 지원금을 포함해 총 700여만원을 받았지만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으로 500여만원을 써 금전적 여유가 없었다. 진로 상담을 할 때 직업군인을 지원해 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군의 기숙사 방에 약품이 든 병과 술병 등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금전적 고민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타 식당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법원 판결에 노조 촉구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노조가 회사측에 광주와 곡성 식당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2일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조업 식당 하청노동자를 파견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를 주요하게 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과 광주식당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이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방식은 같다”며 “이번 판결에 따

라 곡성식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광주식당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식당 근로자들 역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2차 소송과 함께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최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으며 재료 비용, 조리법 등을 포함한 작업지시서(주간 메뉴표)를 배포했다”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로 관리 부실 교통사고’ 광주시 손배 책임 일부 인정

법원이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60대 남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주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이해림 판사는 김모(60)씨와 자녀 2명 등 원고 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해 이륜차를 몰던 김씨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400만원을 배상하고, 미성년인 두 자녀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편도 5차로에서 4차선을 타고 화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홀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비장과 책상 일부가 손상되고 늑골이 골절됐다.

김씨 등 원고들은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됐다면 사고가 날 일이 없다”며 김씨에 대해 7100만원, 두 자녀에게는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왕의 치료비, 하루 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달리던 4차선과 3차선 사이에 약 5.8cm의 높낮이 차가 존재하는 등 노면이 고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td>광주</td><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td></tr> <tr><td></td><td>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td></tr> <tr><td></td><td>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td></tr> <tr><td></td><td>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td></tr> <tr><td></td><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td></tr> <tr><td></td><td>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td></tr> <tr><td></td><td>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tr> <tr><td>전남</td><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td></tr> <tr><td></td><td>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td></tr> <tr><td></td><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td></tr> <tr><td></td><td>다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tr> <tr><td>시외</td><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td></tr> <tr><td></td><td>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tr> </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 (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